중구 영종·용유

옛지명·역사문화·관광지도

2022-문화관광과-01

인천광역시 중구
INCHEON METROPOLITAN CITY JUNG-GU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문화관광과
www.icjg.go.kr tel. 032)760-6475 fax. 032)760-6983

영종동·영종1동 YEONJONG-DONG YEONJONG-1DONG

영종동

고려시대 자연도로 불렸던 영종도는 조선시대 인천도호부 관할지역으로 1653년(효종4) 남양부에 있던 수군기지 영종진을 이곳으로 옮겨 용유, 무의, 삼목, 월미, 신불, 물치 등의 7개 섬을 관할하면서 자연도 대신 영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중산동

옛 영종면의 구읍리와 송산리 일부, 중외촌 일부를 합친 지역이다. 백운산을 중심으로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이라 했다. 이 산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동을 중산동(中山洞)이라 하였다.

- **태평암** 구읍 동쪽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위로 위가 넓고 평평하다. 옆에 태평루와 만아정(挽阿亭)이라는 누각과 정자를 두었다.
- **구읍(舊邑)** 예전의 중심지로 관아가 있던 곳의 의미. 영종진이 있었다.
- **꽃산부리** 중산동에 위치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읍 남쪽의 가파른 낭떠러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곳에 봄이 오면 진달래꽃이 만발해 사람들은 '꽃산부리'란 말을 썼다.
- **돌박재(돌팍재)** 마을 어기저기서 박석(얇고 넓적한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옛 지명은 '외중촌'이었다.
- **마장포(馬場浦)** 마당개라고도 부르는데, 말목장이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대비현(大碑縣)** 영종성당에서 운북동 쪽으로 가는 길 왼쪽에 평소에는 없던 비석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곤 했다고 한다. 비석이 세워지면서 주민들이 이곳을 '대비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소당골** 본래 서당이 있어서 서당골이었으나 훗날 소당골로 바뀌었다.
- **송산(松山)** 옛날 국가에서 궁궐이나 기타 부속 건물을 신축, 보수할 때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가꾸는 조림보호구역이 있었다. 거송이 많아 지명을 송산이라 불렀으며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 무분별한 벌목으로 거송이 사라졌다.

운남동

영종도의 주봉인 백운산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운남동이라 했다. 옛 영종면의 전소리와 외중촌의 일부, 후소리 일부, 송산리 일부를 합한 지역이다.

- **전소(前所)** 백운산 전면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전소라 불렀다.
- **말우물** 예로부터 샘이 많고, 산수가 좋아 힘 센 장사가 여러 명 탄생했다고 전한다. 특히 산을 달리던 말들이 샘에 와서 목을 축이며 쉬어 갔다 하여 '말우물'이라 불렀다.
- **잔다리** 마을 한 가운데로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 작은 다리를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 그를 이용해 잔다리라고 했다고 한다.
- **도장간** 예부터 이 곳에 도살장이 있었다고 하나 연대는 확실치가 않다. 일명 '도장간'이라고도 하는데,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었던 대장간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곳에 대장간이 있었다.
- **절골** 영종도에서 가장 오랜 사찰인 용궁사가 있는 골짜기여서 부른 이름이다.
- **관청말(관청말, 관창말)** 전소 마을에 관청을 신축하기 전 임시관청으로 쓰던 곳이다. 관창말은 관청마을의 와전으로 보인다.
- **남뒤(남디)** 이 마을은 백운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남도마을이라 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와전돼 남뒤, 남디로 불렸다.

운북동

영종도의 주봉인 백운산의 북쪽에 자리 잡은 동네이다. 옛 영종면의 북촌리와 예호리, 후소리 일부를 합친 지역이다.

- **동강리** 금산의 산줄기가 동남쪽으로 내려와 농경지를 이루고, 이 줄기가 다시 솟아 석화산 북쪽 맥과 이어졌는데 그 산에는 구봉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구봉 남쪽에 마을이 생겼는데 오동나무 숲이 무성하고 마을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한다.
- **분토골** 금산초등학교 뒤 골짜기는 예전에 고분이 많았던 곳이라 분토골이라 불렀다.
- **논골** 예부터 이 마을은 집집마다 한 섬지기 이상의 논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 토질이 좋은 논이 즐비하게 있어 논골이라 했다.
- **고염나무골** 원래 노송이 많아 고목송이라 불렀으나 자연생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여 재배해보니 그 열매가 튼실하게 열려 고염나무골이라 불렀다.
- **막은골(마은골)** 마을에 연일 바닷물이 들어와 피해를 입게 되자 논골과 강촌 사이에 축대를 쌓아 바닷물을 막아 마을 이름을 막은골이라 했다.
- **살개** 마을에 있는 산의 모양이 호랑이처럼 생겨 살견현(殺犬峴)이라 불리다가 살개로 변했다고 한다. 강촌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 **입구지** 예단포로 들어가는 입구라 하여 '입구지'라 했다.
- **예단포** 효자가 많은 마을이었다 해서 예대포(禮待浦)라 불리다가 후에 여단포가 되었다는 설과 지형이 예단을 드리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예단포라는 이야기가 전해내려 온다. 또 고려 고종 때 영종도에서 왕이 있는 강화로 예단으로 드릴 물건을 싣고 왕래했다고 해서 예단포로 불렸다는 설도 있다.
- **벗뿌리(벗부리)** 예단포 당산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부리를 '벗부리'라 했다.
- **장구염(장구도)** 섬 모양이 장구와 같이 생겨 장구도라 했다.

용유동 YONGYU-DONG

용유동

섬의 모양이 용(龍)이 헤엄치고 노는 모양(游)과 같다고 하여 용유도라 이름하였다지만, 조선시대 문헌에 보이는 이 섬의 한자 이름은 용유도(龍流島)였고, 1910년 경 용유도(龍游島)로 한자 표기가 바뀌었다.

을왕동

을왕은 왕산(王山)에 왕자의 묘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또, '높은 산이 없이 느릿하고 길게 늘어진 목'이라는 뜻의 '늘목' 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본다. '늘목'을 한자화 하는 과정에서 '늘'은 늘어지다는 의미의 어을(於乙)에서 을(乙)을, '목'은 잘록한 곳을 의미하는 항(項)으로 표기되어 '얼항(孼項)', 을항(乙項), 을왕(乙旺)으로 불려 그 본뜻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 **왕산리** 왕산염전 북쪽에 있는 마을. 왕이 있는 산이란 뜻으로 산에 왕이 묻혀있어 왕산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 **통개** 땅의 생김새가 마치 큰 통처럼 생겨서 통개라 불렀다. 각지의 어선과 화물선 등이 항해하다 날씨가 궂거나 물품이 떨어졌을 때 이곳에 와서 대기하다 출발했던 포구이며 그물 어장터로도 유명했다.
- **산디(산댕이)** 목개 서쪽에 있는 마을. 큰 산 밑으로 띠를 두른 것처럼 이어져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말로 본래 '산띠'라 했는데 나중에 '산디'로 변했다.
- **못개** 늘목 남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 마을에 큰 연못이 있어 '못개'라 했다고 한다.

남북동

남리와 북리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복합지명.

- **등개** 북리마을 남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 이 마을에는 물이 부족하여 한해(旱害)를 무수히 당했다고 한다. 항시 '동개(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맨다는 뜻)'기만하지 살림이 늘지 않아 '등개마을'이라 했다고 한다.
- **날개(나루개)** 관청말 동쪽에 있는 마을. 비포장군석이 있는 포구인데 항시 나룻배가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나루개'라 했다. 또는 장군석이 용유도를 지켜주었다고 하여 '비포리'라고도 한다.
- **관청말** 남리 서쪽에 있는 마을. 용유도 중심에 위치한 마을이다. 문전옥답이 많았는데, 이곳에 마을을 다스리던 관청이 있어 '관청마을' 혹은 '관청말'이라 했다.
- **영구리** 고개 밑에 커다란 굴이 있어 영굴리라 하였으나 후에 변음되어 영구리라 불렀다.

영종·용유 행정구역 변천

- **조선시대** : 인천부
- **1914년** : 경기도 부천군
- **1973년** : 경기도 옹진군
- **1989년** : 인천직할시 중구
- **1995년**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옛날에 '덕을 받은 다리가 놓였다' 하여 덕교리라 불렀다고 하고 혹은 '큰다리'마을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 **마시란(마시안)** 매도랑도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말안장처럼 생겼다고 한다. 또, 옛날 연못에서 용마가 안장을 지고 나와 그 집 주위를 돌며 목메어 울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여 이곳을 말 마(馬), 말이 울 시(嘶), 안장 안(鞍) 자를 써서 마시안이라 불렸다고 전한다.
- **순목개 (술무개, 순지동)** 덕교리와 남북리에 걸쳐 있는 마을. 순지라는 연못에서 용마가 나와 울다가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 **거잠포** 용유도에서 가장 큰 포구이다. 하늘에서 이곳을 내려다보면 마치 커다란 누에가 구부리고 잠을 자는 모습 같다고 하여 '거잠포(巨蠶浦)'라 했다.
- **북머리(벅머리)** 산의 형세가 범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범머리라고 했는데 후에 음이 변하여 '벅머리' 또는 '부엌머리', '북머리'라 불리었다.
- **잠진도** 이 섬과 거잠도 사이에 바다가 있어 물이 잠겼다 나갔다 하여 잠진도라 했고, 이를 줄여 잠나루라 불렀다.
- **매도랑도** 이 섬은 매도 또는 매도리라고 하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위가 우뚝 솟아 매가 새끼를 치고 산다고 하여 '매도랑도'라 했다.

무의동

'무의(無衣)'혹은 '무의(無依)'로 표기되어 있다. 소무의도를 '떼무리', 대무의도를 '큰무리'라 하는데 이 '무리'의 원말은 '물'로, '무이(무리)'로 한자화 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무의(舞衣)로 표기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 **진두곳(진두곶)** 구낙구지 서쪽에 있는 곳. 전에 진을 쳤다고 함.
- **개안** 마치 마을이 바다 안에 들었은 모습 같았다고 해서 '개안말'이라고 불렀다. 어선들이 마을 안까지 출입했다고 해 '포내(浦內)'라고도 했다.
- **하나개(하낙개, 하나께)** 개안 서쪽에 있는 마을. 마을 뒤쪽에 모래가 많은 해수욕장으로 이곳에서 육지 쪽으로 유일하게 큰 개울 하나가 흐르고 있다고 하여 '하나개'라 부르고 있다.
- **샘꾸미** 집집마다 사용하는 우물이 깊이가 얕으면서도 샘이 잘 난다고 하여 '샘꾸미'라 불렀다고 한다.
- **사렴도** 무의도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섬의 모습이 '대매랑도'를 향해 뱀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형태와 같아 '사렴도'라 했다.
- **팔미도** 무의도에 속하는 섬으로 두 개의 섬이 여덟 팔(八)자의 모양을 하고 있어 불려진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여달미' 라 불려졌다. '여달'은 여덟(八)을 말하고 '미'는 산을 의미하는 '뫼'에서 발음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운서동 UNSEO-DONG

운서동

1914년 후소리(後所里) 일부와 삼목도, 신불도를 통합한 지역으로 백운산 서쪽 마을이다.

- **삼목도**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있던 작은 섬이다. 섬 가운데 큰 나무 세그루가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도 하고 섬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갯골목이 세 곳이어서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넙뒤(넙듸, 넙디, 넙디)** 가막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넙듸산 밑이 된다. 넓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광동(廣洞)이라고도 한다.
- **큰말** 넙뒤 남쪽에 있는 마을. 해변을 끼고 있어 염벗은 물론 큰 배를 부리던 마을이어서 큰말이라고 했다. 대촌(大村)이라고도 한다.
- **은골(음골)** 넙디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깊은 골짜기의 안이 됨. 옛날에 산림이 하도 울창해 마을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한다. 그래서 '숨겨진 동네' 곧 '은골'이라고 했다. 어은골, 어은동(於隱洞), 어음동이라고도 한다.
- **눈돌(는들, 눈들)** 은골 서쪽에 있는 큰 바위를 눈돌, 한바위, 백암이라고 하는데, 눈돌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큰 돌이 누워 있다 하여 누운 돌 즉, 눈돌이라 했고 돌의 색깔이 희다고 해서 백암촌, 백암동(白岩洞)이라고도 불렀다.
- **세퍼리(쇠퍼리, 세파리)** 가막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드나드는 뻘에 갈대가 무성하여 쇠뻘마을이라 했다. 후에 쇠펄로 음이 바뀌었다.
- **가마골(가막골, 가마굴, 가마동, 개미골)** 운서리에서 가장 큰 마을. 마을 옆 골짜기에 숯을 굽던 가마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벌미** 용수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염밭이 있었다. 산의 한 줄기가 갯벌로 그 꼬리를 감아 돌아 멈췄다 해 '벌미'라 했다고 한다.
- **서풀** 서쿠리, 섶풀. 신불도에 있는 마을.
- **불당곶(불당골)** 절이 있던 곳이라 '불당골'이라 했는데, 후에 '붓당골'로 바뀌었다.
- **입중고지(압중곳지)** 용유도 왕산리와 예단포 중간으로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젓개** 옛날 영종도 북방 해안에 새우와 고기 등이 잘 잡혀 집집마다 '젓배' 한 척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젓배가 많은 마을이란 뜻의 '젓배마을'이라 했는데 나중에 젓배가 젓개로 바뀌었다.

YEONGJONG·YONGYU
HISTORY & CULTURE TOURIST MAP

참고문헌
영종·용유지발간위원회, 『영종·용유지』, 200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 2002.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유래』, 1998

중구 영종·용유 옛지명·역사문화·관광지도

영종동 · 영종1동 YEONJONG-DONG YEONJONG-1DONG

▸ 중산동

구 영종진 터(영종진공원)

1875년 일본에 의해 야기된 영종진 피격사건의 현장으로 방화와 살육, 약탈이 자행되었던 곳이다.

중구 구읍로 63(중산동 1957-2)

영종역사관

중구 구읍로 63(중산동 1957-2)

씨사이드파크

약 8km의 해변공원으로 인천에서 유일한 레일바이크가 있다.

중구 하늘달빛로2번길 6 일원(중산동 1967-1)

영종역사관 선정비군

영종첨사와 방어사를 지낸 인물들에 대한 선정비이다. 거사대(去思臺), 만세불망비, 애민선정비, 청덕애민영세불망비, 청근애민비(淸謹愛民碑) 등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구 구읍로 63 영종역사관(중산동 1957-2)

태평루

구읍 동쪽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위로 위가 넓고 평평한 태평암이 있었고, 그 옆에 태평루와 만아정(挽阿亭)이라는 누각과 정자를 두었는데 2015년 8월 태평루를 재현하였다.

중구 구읍로 63(중산동 1957-2)

송산선사유적지

영종도 남쪽 송산마을의 해안가 모래언덕 위에 있던 유적으로 밀집 분포된 상태의 화덕자리만 발견된 특이한 생활유적이다.

중구 중산동 589번지 일대

양주성금속비

일제에 의한 영종진 피격 사건 이후 재건을 위해 영종첨절제사로 부임한 양주성의 공덕을 기리는 철비(鐵碑)이다.

중구 구읍로 63 영종역사관 (중산동 1957-2)

영종진 전몰영령 추모비

1875년 일제에 의한 영종진 피격 사건으로 전사한 35명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현양하기 위해 2015년 4월 옛 영종진 터가 있는 영종진공원에 세워진 추모비이다.

중구 구읍로 63 (중산동 1957-2 영종진공원)

▸ 운남동

용궁사(龍宮寺)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흥선대원군이 구담사에서 용궁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며 대원군을 비롯한 왕실의 후원을 받아 중창되었다.

중구 운남로 199-1 (운남동 667)

백운산 봉수 터

2001년 인하대 박물관의 조사에서 줄지어 늘어서 돌무리 3개가 발견되었다. 부지가 넓지 않아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 운남동 백운산 정상

신 영종진 터

현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자리일대로, 운양호사건 후 영종진 파괴되자 이곳에 새로 영종진을 설치했다.

중구 운남동 799번지

용궁사 느티나무

할아버지 나무와 할머니 나무가 1쌍으로 되어 있다. 수령은 1,300년으로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중구 운남로 199-1 (운남동 667)

인천대교 기념관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운남동 1113-70)

▸ 운북동

두경승(杜景升) 묘

고려 무인집권기 최고 권력자 최충헌의 견제로 자연도에 유배되어 생을 마친 무인의 묘이다.

중구 운북동 141

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 교사

1946년 9월 영종국민학교 운북분교로 시작. 1953년 4월 금산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1994년 3월 1일에 인천영종국민학교 금산분교장이 되었다.

중구 백운로 414번길 63-50(운북동 453-1)

운서동 UNSEO-DONG

▸ 운서동

넙디고택

김해 김씨 김달현(金達顯 1900~1973)이 생존 당시 건립한 주택으로, 영종에서 제일가는 한옥으로 이름이 높았다.

중구 운서2로 55번길 16(운서동 2895-6)

삼목도 선사주거지

인천국제공항 건설 부지 조성 과정에서 빗살무늬토기편들이 채집됨에 따라 발굴이 시작되었다. 2011년에 조성되고 2012년 일반인에게 개방하였다.

중구 운서동 1830-1 외 9필지 일대

인천국제공항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2840)

세계평화의 숲

중구 신도시북로 31-35(운서동 2746-4) 일대에 위치한 자연, 생태공원이다. 2007년부터 조성해오고 있다.

중구 신도시북로 31-35(운서동 2746-4)

인천학생과학관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74-10(운서동 3077-5)

BMW 드라이빙 센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최고급 BMW 시리즈를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곳이다.

중구 공항동로 136(운서동 3194)

용유동 YONGYU-DONG

▸ 남북동

3.1 독립만세 기념비

용유면 관청리 광장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한 150여 명의 애국선열과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11인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중구 마시란로 280-14(남북동 950-5)

남북동 조병수 가옥

1890년에 건축된 것으로 황해도 이남의 해안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중상류층의 가옥이다. 1997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하였다.

중구 남북동 868번지

응유쉼터 내 선정비군

3기로 1기는 운서동 출신 김종현(金鍾顯)의 공익기부사업을 기념해 주민들이 세운 송덕비이고, 나머지는 영종첨사겸방어사를 지낸 이중영의 영세불망비, 이유증의 만세불망비이다.

중구 남북동 937-7

비포장군바위

고려 말 용유도에 상륙하려던 왜구가 바위에 앉아 있는 갈매기 떼들을 군사로 착각하여 퇴진했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이다.

중구 남북동 100-42

▸ 을왕동

선녀바위

중구 선녀바위로 68-2(을왕동 179)

거북바위

중구 을왕동

백마부대 충혼탑

6.25 전쟁 당시 유격백마부대에서 산화한 552명의 전사자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탑이다.

중구 용유로 763-1(을왕동 산119)

왕산 마리나(요트장)

마리나(marina)는 요트나 레저용 모터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말한다.

중구 용유서로 466(을왕동 812-9)

을왕리 해수욕장과 왕산 해수욕장

중구 을왕동 269

▸ 덕교동

마시안해변

중구 덕교동 662-5

▸ 무의동

팔미도 등대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이다. 1903년 6월 1일 점등되었다. 2020년 4월 사적 제557호로 지정되었다.

중구 팔미로 28(무의동 산 373번지)

팔미도 등대 역사관

중구 팔미로 28(무의동 산373)

실미도와 실미 해수욕장

중구 큰무리로 99 (무의동 768)

하나개 해수욕장 유원지

중구 하나개로 129(무의동 산189)

소무의도

중구 무의동 산369